

정보화시대 전쟁원칙의 실용성에 대한 고찰

朴 輝 洛

(국방대 안전보장대학 군사전략학부 교수)

- 서 론
- 전쟁원칙의 의미와 발전 경과
- 전쟁원칙 연구의 현상분석과 발전방향
- 결 론

1. 서 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전쟁원칙이 현대의 정보화시대(Information Age)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이 포함되고 제외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해군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노력은 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세브로스키(Vice Admiral Arthur L. Cebrowski) 제독이 미 국방부 '군사력변혁실(Office of Force Transfor-

mation)' 책임자로 옮겨간 것을 계기로 전군 범위로 확산되었고, 국방부 차원에서 전쟁원칙에 관한 토론을 공식적으로 장려하여 왔다.¹⁾ 그리고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미군은 정보화시대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전쟁원칙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토의하고 있다.²⁾

전쟁원칙에 관한 연구는 전쟁의 범위와 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변화의 폭이 클수록 그에 따라 전쟁원칙도 변화되어야 하는지,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누적된 실제적인 성과는 크지 않다. 전쟁원칙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풀리가 20세기 초에 제시한 전쟁원칙의 원형이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한 토의가 활성화되다가 명확한 결론없이 종료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전쟁원칙에 대하여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전쟁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교범을 수정할 경우에 일시적이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최근 미군이 전쟁원칙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의 전쟁수행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전쟁원칙이 타당할 것이냐는 것은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이러한 토론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

1) 미 국방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전쟁원칙에 관한 논문을 공모하고, 그들을 심사하여 포상하였으며, 선택된 글을 다음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Anthony D. McI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A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5).

2) 예를 들면, 새로운 전쟁원칙으로 Antulio J. Echevarria II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Understand the Nature of War)', '현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Understand the Nature of the War at Hand)'를 주장하고 있고(Ibid., pp. 70-75), Grant H. Hammond는 '초점(Focus), 다재성(Versatility and Adaptation), 주도권과 조성(Initiative and Shaping), 기습(Surprise), 지속성(Sustainment), 정밀효과(Precision Effects)'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Ibid., pp. 119-122), Frank G. Hoffman은 '이해(Understanding), 최종상태(End state), 노력의 통일(Unity of effort), 신뢰성(Credibility), 분별적 병력(Discriminate Force),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 지구성(Endurance), 민첩성(Agility)' 등을 주장하고 있다(Ibid., pp. 301-315).

보화시대와 정보화시대 전쟁수행방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쟁원칙을 바꾸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다. 아직 정보화시대의 진면목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과장될 수도 있는 미래전에 대한 현재의 전망을 토대로 성급하게 변화시키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정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로 인하여 미래전에서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일반적 판단이지만, 수십년이 흐르고 나서 판단하거나 역사의 긴 과정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전쟁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의 대부분은 전쟁원칙에 대한 과장된 인식, 즉 올바른 전쟁원칙이야말로 승리의 원천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원칙은 승리의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고, 전쟁수행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요약해 놓은 것일 수는 있어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전쟁원칙은 지휘관, 참모,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군사력의 효과적인 운용에 관한 최소한이면서 공통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의 적용만으로 승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전쟁원칙을 정립하여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핵심적 내용과 효과적인 구현방법을 잘 이해하고 실제의 상황과 부합되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휘관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승리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전쟁의 수행은 상당할 정도로 예술(art)³⁾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3) 영어의 'art'와 'science'는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art는 맞고 틀림을 구별하기 어렵고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일률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인 인간의 역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측면이 크고), science는 그 반대로 맞고 틀림이 존재하고 법칙대로만 하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한국군에서는 'art'를 '술(術)'이라고 번역하여 미술이나 음악에서의 'art'와 구별하려고 하지만, '술'은 국어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된 명사가 아니고, 실제 서양의 군사학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 'art'가 미술이나 음악에서 말하는 'art'와 다른 것도 아니다.

전쟁의 수행은 예술(art)이면서 과학(science)이라는 것이 최선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예술적 적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독특한 맥락, 돌발 요소, 기회 등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필요시에는 원칙이나 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배함으로써 이점을 창출하는 것이다. 마한(Mahan)이 이해했듯이, 예술은 원칙과 규칙의 존재를 안내자 정도로만 수용한다.⁴⁾

당연히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도록 전쟁원칙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나가야 하지만, 토의의 생산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토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토의를 통하여 산출된 내용의 유용성이 높아야 토의를 통한 발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대별 변화에 따라 전쟁원칙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자칫하면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현재의 전쟁원칙이 유효한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정립되어 있는 전쟁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의의 생산성은 더욱 높을 수 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전쟁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완전한 전쟁원칙을 도출하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유사시 전쟁원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구비하지 못하여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데 적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원칙이 정립된 이후 전쟁원칙의 의미, 비교, 타당한 원칙의 종류에 관해서는 많은 토의가 있었지만, 전쟁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전쟁원칙간의 관계, 전쟁원칙을 군사력의 운용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토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미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시대 전쟁원칙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도 이론적인 토의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이 있다. 전쟁원칙에 대한 실질적 토의를 유도하고, 토의 방향에 관한 균형을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현 전

4) Anthony D. Mcl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p. 302.

쟁원칙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미군을 중심으로 기존 전쟁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활성화된 상황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전쟁원칙의 실질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전쟁원칙의 의미와 발전 경과를 설명한 다음, 전쟁원칙과 그에 관한 토의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쟁원칙의 활용도를 강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발전방향에 관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제목이나 목록을 열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안적이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질성의 정도는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추가적 연구를 기대하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한 단계 정도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쟁원칙의 의미와 발전경과

(1) 전쟁원칙의 의미

전쟁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사전에 보장해줄 수 있는 첩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법칙이나 요소가 있다면 그의 발견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연금술사처럼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서 종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전쟁원칙(Principles of War)’이다.⁵⁾ ‘전쟁원칙은 전쟁 수행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로서, 이러한 전쟁원칙은 전쟁의 법칙과 원

리에 기초를 두고 경험 요소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고, 이의 적절한 적용은 지휘권 행사와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⁵⁾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원칙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원칙은 군인들에게 특정한 전쟁이나 군사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적 쉽고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의 요소일 뿐, 그것 자체로서 승리를 기약할 수는 없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적 쉽게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촉매(catalyst)라고 할 것이다. 전쟁원칙에 대한 관심과 토의 자체가 효과적인 전쟁의 수행과 대비에 관한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전쟁원칙은 총력전에 참가하는 민간인 지도자들에게 군사력 운용에 관한 핵심적인 방향을 손쉽게 이해시킬 수도 있다. 전쟁에 관한 핵심적 요소를 함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의 양이 적고, 쉬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방도 전쟁원칙을 잘 이해한다면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군대에 대하여 전쟁원칙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잘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 후자의 군대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전쟁수행이 가능할 것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 하에서도 최선의 대처방향을 효과적으로 도출 및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전투원과 부대의 노력을 효과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통합함으로써 승리의 확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현대적인 전쟁원칙을 정립한 산파인 영국의 풀러(John Frederick Charles Fuller, 1878-1966)도, 기본적으로는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휘관이

5) 협의의 '전쟁원칙'은 영국의 풀러가 정립한 이후 현재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 그 몇 가지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원칙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쟁의 승리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함축적이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한다.

6) 육군본부, 교육참고 7-7-11, 『전쟁원칙 적용 전망』(1992), p. 24.

전쟁에서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불변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전쟁원칙’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⁷⁾ 전쟁원칙이 지니는 의미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원칙이란 이것을 잘 이해하여 적용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요소들이다. ‘원칙’⁸⁾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전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잘 변화하지 않는다. 지휘관과 참모들은 부대 운용방향을 결정할 때 전쟁원칙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그 당시 발생하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그럼으로써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중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지휘관은 주공지역에 강하고 많은 군사력을 할당하는 대신에 조공지역에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고, 기동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지휘관은 부대의 이동속도와 행동의 자유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며, 기습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지휘관은 적을 기습공격하거나 기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전쟁원칙을 활용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이러한 사항을 체득하는 지휘관도 있을 수 있지만, 전쟁원칙을 활용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제외되는 요소없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원칙’보다는 ‘전승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⁹⁾

7) “Is there then nothing permanent which we can hold on to? Fortunately, ‘yes,’ the principles of war.” Major General J.F.C. Fuller, *Armored Warfare: An Annotated Edition of Lectures on F.S.R. III* (Harrisburg, Pennsylvania: The Military Service Publishing Company, 1943), p. 11.

8) 사전적 의미로 ‘원칙(原則)’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지속성과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 대신에 ‘원칙적으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칙이라는 것은 대체적인 방향과 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9) ‘전승의 원칙’에 관해서는 박휘락, 『현대 군사연구』(서울: 범문사, 1998), pp. 207-240 참조.

둘째, 전쟁원칙은 몇 가지 요소로서 군사학(military science)의 요체를 함축한 내용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누적되어 군사학이 형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점점 방대해짐에 따라 모든 요원들이 전체를 익히는 것은 어렵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대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한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그것만 익히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에서 착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특정한 운동경기를 잘하고자 할 경우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요령을 선정하여 그것을 중점적으로 유념하도록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좋은 효과를 거두려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비록 처음에는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의 출발점으로 전쟁원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현재에는 지금까지 발전된 모든 군사학적인 결론을 함축한 것이 전쟁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전쟁원칙은 군사문제의 범칙성이 지니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대체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따라서 과학(science)보다는 예술(art)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탐구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것이 현대의 군사학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군사학의 발전 결과에 힘입어 과학적 해결의 도그마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하기 때문에 전쟁원칙은 원칙의 명칭과 간략한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전해지고 있다. 현대적인 전쟁원칙을 최초로 정립한 풀러도 이러한 오해를 경계시키고 있다. 그는, “전쟁에서 도그마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요인보다도 더욱 많은 군대를 파괴하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없다. ... 만약 이 책이 도그마를 풀어놓는 데 성공한다면, 이 책이 헛되이 쓰인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¹⁰⁾라고 기술하고 있다. 전쟁원

10) Major General J.F.C. Fuller, *Armored Warfare: An Annotated Edition of Lectures on F.S.R. III*, p. ix x.

칙을 축대로 하여 승리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남겨진 어려운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발전 경과

전쟁원칙은 전쟁이 존재함과 더불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전쟁이 발생하면서부터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핵심적인 결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되어 전파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정리된 내용 자체가 산만하거나 불충분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체계성을 확보하게 되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일부 요원들에게만 국한되었을 것이나 점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며, 처음에는 전술적인 차원에 관한 사항이었겠지만, 전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내용의 수준도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수준에서 보면 내용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전쟁의 수행에 관해서는 충분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문서형태로 전승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거에 전쟁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양의 경우에 전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군사 전문가들이 국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교육시키거나, 선배 군인들이 후배군인들에게 승리를 위한 요결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군사전문가가 국왕에게 강의하는 사례가 많고, 국왕과 신하간의 대화 형식으로 작성된 병서도 있다.¹¹⁾ 그리고 군사이론가들이 상호 토의하거나 후학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승리를 위한 비결을 정리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무경칠서’를 비롯한 다수의 병서

11) 예를 들면, 『오자』는 오기와 위나라 무왕과의 문답 형식이고, 『육도』는 태공망이 왕에 대하여 강론하는 형식이며, 『이위공문대』는 이정과 당태종간의 문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 기술되었다. ‘전쟁원칙’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병서들의 주안은 승리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통찰력있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전쟁원칙(Principles of War)’은 18세기 후반 서양 계몽주의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그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프레데릭 대왕(Frederick the Great, 1712-1786), 프랑스의 기베르(Jacques Antoine Guibert, 1743-1790), 독일의 뷔로우(Adam Heinrich Dietrich von Bulow, 1757-1808) 등이 그러한 시대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들은 그들의 경험과 연구한 바를 중심으로 기하학적이거나 수학적인 법칙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고, 작전선, 작전기지 등의 개념이 이 시기에 정립되었다. 다만, 이들은 법칙성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균형을 상실하여 나중에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장 열정적으로 전쟁원칙을 탐구한 뷔로우는 현재 ‘자만심이 강한 괴짜로부터 현대 군사학의 주창자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¹²⁾

당시의 과학성 추구 경향과 거리를 두면서 실제적인 입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한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조미니(Baron De Jomini, 1779-1869)이다. 조미니는 전략 차원에서는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대전술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부대의 세부적 운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 금언, 전례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이론이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학적 정확성으로 가르쳐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론이 피해야 할 오류를 언제나 지적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12)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 p. 114.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이 용감한 병력을 지휘하는 유능한 장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¹³⁾라고 하여 훌륭한 지휘관에 의하여 제대로만 응용되면 전쟁원칙 등이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도 어떤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한 바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철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전쟁을 분석하였고, 기본적으로 군사이론의 과학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¹⁴⁾ 그는, ‘이론은 미래 전쟁지도자의 정신을 길러주거나 스스로 자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만 전쟁터까지 그를 동반하지는 않는다’¹⁵⁾라고 하여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대신에 클라우제비츠는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전쟁의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군사적 천재(military genius)’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은 특정한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황과 여건에 따른 지휘관의 대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의 거리나 각도와 같은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소와 함께 군인들의 사기나 지휘관의 심리와 같은 ‘계측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탐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

일반적인 군사이론으로부터 ‘전쟁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영역을 독립시키고, 그 내용의 틀을 형성한 사람은 영국의 풀러(J.F.C. Fuller, 1878

13) Baron De Jomini, *The Art of War* (trans. Capt. G.H. Mendell and Lieut. W.P. Craighill (Westport: Green Press, 1962), p. 323.

14) 클라우제비츠는 대위 시절에 프로시아 황태자 교육을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간단하게 메모한 바 있다. Carl von Clausewitz, 이희태 역, 『전쟁의 원칙』(2003) 참조. 그러나 클라우제비츠는 원칙에 대한 의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제갑, “군사전략·전술의 이론과 실제,” 월간 『국방』, 제189권, 통권 제212호(서울:국방부, 1991. 8), p. 147.

15) Carl von Clausewitz, *On War*, 류제승 역, 『전쟁론』(서울: 책세상, 1998), p. 124.

16) 손주영 편저, 『강좌 전략론 III: 전쟁론』(해군사관학교, 1996), p. 23.

-1966)이다. 풀러는 그 당시까지 논의되어오던 군사이론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군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을 요약하여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는 당시까지 전해 내려온 군사이론의 핵심적인 결론들을 종합하여 1912년에 『전쟁을 위한 병사훈련』이라는 팸플릿으로 처음 발간하였고, 이것이 현대 전쟁원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정을 통하여 풀러는 최종적으로 8개의 전쟁원칙을 제시하였다.

영국군은 풀러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 ‘목표의 유지(Maintenance of Objective), 공세적 행동(Offensive Action), 기습(Surprise), 집중(Concentration), 병력절약(Economy of Force), 보안(Security), 이동성(Mobility), 협동(Co-Operation)’의 8가지를 공식적으로 선정하였다. 미군은 1921년에 훈련규정(Training Regulation) 100-5 『교리, 원칙 및 방법(Doctrines, Principles, and Methods)』에서 영국의 전쟁원칙을 받아들였다가, 1949년에 미 육군의 야전근무규정(U.S. Army Field Service Regulation)에 9가지의 전쟁원칙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쟁원칙은 풀러가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몇몇 군사이론가들이 가감 또는 변경하거나, 국가별로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주요 국가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쟁원칙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항목의 수나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유사하고, 특히 집중, 기동, 기습과 같은 일부 원칙의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국가들의 대부분도 최근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이와 유사한 원칙들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전쟁원칙¹⁷⁾

미 국	영 국	소 련	프 랑 스	중 국
목표(Objective)	목표의 선정과 유지 (Selection and maintenance of aim)			목표의 선정과 유지 (Selection and maintenance of aim)
공세(Offensive action)	공세(Offensive action)			공세(Offensive action)
집중(Mass)	병력 집중 (Concentration of force)	집중, 병력상호관계 (Massing and correlation of force)	노력 집중 (Concentration of effort)	병력의 집중 (Concentration of force)
병력절약(Economy of force)	병력절약(Economy of force)	절약, 병력의 충분성 (Economy, Sufficiency of Force)		
기동(Maneuver)	융통성(Flexibility)	주도성(Initiative)	행동의 자유 (Liberty of action)	주도성과 융통성 (Initiative and Flexibility)
지휘통일(Unity of command)	협조(Cooperation)			조정 (Coordination)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보안(Security)
기습(Surprise)	기습(Surprise)	기습(Surprise)	기습(Surprise)	기습(Surprise)
간명(Simplicity)				
	사기 유지 (Maintenance of morale)			사기, 정치적 동원 (Morale and political mobilization)
		기동성과 템포 (Mobility and tempo)		템포(Tempo)
		전체대동시공격 (Simultaneous attack on all levels)		
		전투효율성 보존/ 협동/조정 (Preservation of combat effectiveness, interworking and coordination)		행동의 자유 (Freedom of Action)

17) Anthony D. McI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A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5), p. 117.

3. 전쟁원칙 연구에 대한 현상분석과 발전 방향

(1) 현재의 전쟁원칙 연구 실태

전쟁원칙이 도입된 이후 각국의 군대에서 이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연구와 토의를 실시하여 왔지만,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해보려 하면 실제적인 성과들은 많지 않다. 그 실태를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원칙에 대한 지금까지의 토의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존 전쟁원칙의 타당성이나 일부 전쟁원칙의 제외와 추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면서, 각 전쟁원칙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그 구현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롭거나 큰 폭의 시대적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전쟁원칙의 변화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한순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잠잠해지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쟁원칙에 관해서도 '기존 전쟁원칙이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가, 이미 낡아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¹⁸⁾ 최근 정보화 시대가 열림에 따라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존의 전쟁원칙이 여전히 타당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고, 이에 관한 논문을 광범위하게 공모하였으며, 일부 논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한 논문에서도 전쟁원칙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제한적인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¹⁹⁾

18)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개정판)』(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4), p. 38.

19) 포함된 29개의 논문 중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원칙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6개 정도에 불과하다. Anthony D. McI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문제제기에 그치고 실제적 성과를 누적시키지는 못하였다. 핵무기의 개발, 군사분야 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같은 ‘혁명적인’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쟁원칙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에도 불구하고, 제2차대전 이후의 전쟁원칙들이 여전히 현 전쟁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다지 발전되거나 구체화된 바가 없다.

한국군의 경우에도 미군으로부터 전쟁원칙을 도입한 이래 전쟁원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대부분의 토의가 어떤 전쟁원칙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킬 것이냐에 치중되었다. 전쟁원칙에 관한 논의는 주로 육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육군의 경우 1963년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9개의 전쟁원칙을 도입한 이래, 1983년에는 ‘정보’, ‘창의’, ‘사기’의 원칙을 포함시키는 대신에 ‘지휘통일’과 ‘간명’의 원칙을 추가하였고, 1989년에는 ‘지휘통일’의 원칙을 복원하면서 ‘병력절약’의 원칙을 제외시켰으며, 1999년에는 원래의 9개 원칙을 모두 복원시키고 정보, 창의, 사기의 원칙까지 추가하여 12개의 원칙으로 확대하였다.²⁰⁾ 그리고 2002년 합참에서는 기존의 전쟁원칙을 ‘군사작전 원칙’으로 변경시키면서 ‘목표, 정보, 방호, 지휘통제, 주도권, 통합, 지속성, 사기’의 원칙으로 용어들을 변경하였다.²¹⁾ 특히 이러한 토의는 전쟁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교범을 수정할 때 일시적으로 추진되었고, 야전군인으로 구성된 교범작성요원들이 중심이 됨에 따라 과학적 분석보다는 군인적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둘째, 전쟁원칙들 간의 우선성이나 비중의 차이가 제시되지 못하여 전쟁원칙의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어떤 요소를 열거할 경우 그 열거순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거나 가장 먼저 열거되는 원칙의 비중이 크다는 등의 일반적인 인식을 통하여 체계성을 보장한다. 중요한 원칙이 있으면 더욱 집중적으로 발전되거나 더욱 우선적으로

20) 박휘락, “전쟁원칙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향,” 『합동군사연구』 제15호(2005), p. 20.

21)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 『군사기본교리』(2002. 12), pp. 57-62.

적용되어야 하고, 중요도가 낮은 원칙은 그러한 상태로 이해됨으로써 상황이 급박하거나 몇 가지 원칙이 상충될 때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쟁원칙을 보면 그 순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열거하고 있는 전쟁원칙의 순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²²⁾ 따라서 모든 전쟁원칙의 비중이 동일한지, 어떠한 전쟁원칙이 더욱 중요한지, 전쟁원칙이 상충되었을 경우 어떤 원칙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전쟁원칙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원칙과 그렇지 않은 원칙이 있다면, 비중은 고려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배열은 중요하지 않은 원칙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국군의 경우 지금까지 ‘정보, 창의, 사기, 간명, 지휘통일, 병력절약’ 원칙의 포함 여부가 전쟁원칙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원칙들의 중요도가 실제로 크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 원칙의 토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결과가 된다. 중요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토론의 분량이 조절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사를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승전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원칙과 몇몇 전례에서만 적용되었던 원칙이 있고, 승리에 큰 영향을 끼친 원칙과 그렇지 않은 원칙이 있으며, 대부분의 전략가들이나 국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칙과 그렇지 않은 원칙이 있다. 대부분의 원칙은 전쟁에 대한 통찰력과 전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결과에 의하여 선정되지만, 어떤 원칙은 특별한 상황적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되었을 수도 있다.²³⁾ 그러나 현재의 배열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특정한 논리없이 배열되

22) 미군의 경우에는 ‘목표, 공세, 집중, 병력절약, 기동, 지휘통일, 보안, 기습, 간명’의 순서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목표의 유지, 보안, 기습, 공세적 행동, 군사력 집중, 노력의 절약, 융통성, 협동, 지속성’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 ‘목표, 정보, 방호, 지휘통제, 주도권, 통합, 지속성, 사기’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23) 예를 들면, 미군의 경우 ‘간명의 원칙’은 정병제로 인하여 장병의 질이 낮던 시대의 필요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고 한다. Anthony D. McI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p. 118. 이 경우 다른 원칙과 동등한 비중으로 간주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

어 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하는 전쟁원칙에 관하여 어떠한 배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원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각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추가되어 설명의 양이 증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각 원칙들의 구현방향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지만, 최초로 정립된 각 원칙의 내용들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거나 감소되고 있다. 특정 원칙의 제외 및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됨에 따라 내용의 구체화에는 관심이 투입되지 못하였고, 토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오히려 줄이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에 ‘합동작전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을 토론하는 상황에서 명칭 자체는 전통적인 원칙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그 설명하는 내용의 양은 각 원칙별로 한 문단 정도에 불과하고 중요한 원칙들에 대한 설명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⁴⁾ 한국군의 경우에도 1963년에 미군의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모든 원칙들에 대한 설명이 한 문단 정도로 국한되고 있고, 각 원칙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나 해설이 추가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전쟁원칙은 점점 비결(秘訣)과 같은 내용이 되어 군사적 안목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각 원칙별로 기술의 형태나 전개순서가 달라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각각의 원칙별로 설명의 흐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원칙별로 충분히 설명된 상태인지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면, 미군이나

24) 목표(Objective)의 원칙만 설명의 양이 증대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자제(Restraint), 정통성(Legitimacy) 등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나, 기타 기존의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의 양은 매우 적다. ‘집중’의 경우에는 81개 단어, ‘기동’의 경우에는 136개 단어, ‘기습’의 경우에는 73개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Ibid, pp. 551-556.

한국군이 최초로 도입한 전쟁원칙 중에서 목표의 원칙의 경우에는 ‘중요성, 선정시 고려사항, 유념사항’의 순서로, 공세의 원칙은 ‘중요성, 지휘관 유념사항’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고, 집중의 원칙은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으며, 절약의 원칙은 ‘정의’만을 설명하는 등 각 원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²⁵⁾ 미군이 검토하고 있는 ‘합동작전의 원칙’의 경우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원칙의 목적을 가장 먼저 열거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나름대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²⁶⁾ 그 외에는 기술의 형식이 여전히 통일되지 못한 상태이고, 한국군의 ‘군사작전 원칙’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서 각 원칙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지휘관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미흡하다.²⁷⁾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대적 변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각 원칙의 설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내용 기술의 형식을 일관성있게 적용함으로써 각 원칙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읽더라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구현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원칙의 설명내용을 일관된 틀에 의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더욱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실제 군사작전을 계획하거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쟁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개발하는 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원칙이 ‘군사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실시간에 적용되어야 할 지배적인 원리’²⁸⁾라면,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작전의

25) 정하명 외, 『세계전쟁사』(서울: 일신사, 1980), pp. 17-19 참조.

26) 새롭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자제(Restraint), 지구성(Perseverance), 정통성(Legitimacy)’의 원칙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문장은 ‘The Purpose of ...’로 시작하고 있다. McI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pp. 551-556 참조.

27) 목표의 원칙은 ‘정의, 중요성, 선정시 고려사항, 유념사항’의 순서, 정보의 원칙은 ‘정의, 요건, 유념사항’의 순서, 방호의 원칙은 ‘정의, 중요성, 달성방법, 유념사항’, 지휘통제의 원칙은 ‘정의, 중요성, 달성방법, 유념사항’의 순서로 기술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 『군사기본교리』(2002. 12), pp. 57-62.

계획과 실시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러한 반영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의 적용을 지휘관과 참모들의 자의에만 의존해서는 위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작전을 계획하거나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정도로,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전쟁원칙을 적용될 것인가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느 원칙을 추가시킬 것인가를 토의하는 것보다 더욱 실질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미군의 일부에서 작전술(Operational Art)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전쟁원칙을 고려하는 것으로 절차를 발전시킨 예는 있었으나²⁹⁾ 공식적인 교범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군에서는 작전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전쟁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한번도 토의되지 않았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원칙은 간부들을 교육하거나 전사를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지,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거나 작전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쟁원칙이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작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전쟁원칙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전쟁원칙의 시각에서 작전계획이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절차나 장치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 부대의 작전계획이 집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동의 원칙에는 부합되는지, 기습의 원칙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노력이야말로 전쟁원칙의 유용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전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쟁원칙의 명칭 자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원래 서구에서 전쟁원칙을 발전시켜온 근본적인 동기는 군사적인 승리였고,³⁰⁾ 과거에는 그러한 군사적인 승리가 바로 전쟁의

28) Ibid., p. 57.

29) 미 합동참모대학에서는 작전술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작전개념이 전쟁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US Joint Forces Staff College, *The Joint Staff Officer's Guide 2000*, 합동참모대학 역, 『00 합동참모장교지침서』(2003), p. 3-17-3-22.

승리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전쟁원칙이란 명칭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적용하는 차원으로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쟁과 군사작전이 분명히 구별되고, 전쟁에는 군사와 함께 외교, 경제, 사회 등의 제반 국력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총력전이라는 명칭으로 통하여 전쟁에 대한 제반 국력요소의 통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총력전에 승리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거 군사작전 위주 전쟁에서 적용되었던 집중, 기동, 기습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의 전쟁개념에 맞도록 새로운 전쟁원칙을 만들든가, 아니면 전쟁원칙이란 명칭을 군사작전에 관한 제목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용과 명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미군은 한 때 ‘전쟁이외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s Other than War)’에 관한 원칙(목표, 노력의 통일, 정통성, 지구성, 자제, 보안)을 분리하였다가 현재는 전통적인 전쟁원칙과 결합하여 하나의 ‘합동작전 원칙(Principles for Joint Operation)’을 만들고 이의 공식화를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³¹⁾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든 전쟁원칙은 전투에 관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³²⁾ 또한 한국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2년에 ‘군사작전 원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목표 정보, 방호, 지휘통제, 주도권, 통합, 지속성, 사기의 원칙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³³⁾ 다만, 이러한 시도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원칙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0) Anthony D. McI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pp. 59-60.

31)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Ibid., pp. 551-556.

32) Ibid., p. 59.

33)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1, 『군사기본교리』(2002. 12), pp. 57-62.

(2) 발전 방향

군사학적인 탐구가 누적되고, 전쟁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당연히 전쟁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와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전쟁원칙이 포함되거나 제외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반복적인 토의는 생산성이 적다. 전쟁원칙을 쉽게 변화시키려는 사고도 실질적이지 못하다. 잦은 변화는 원칙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활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 전쟁원칙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유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측면에 대한 토의가 미흡했다고 본다면 이 분야에 대한 보완적인 토의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원칙들의 체계적 분류

전쟁원칙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³⁴⁾ 실제 군사작전에서 적용되는 원칙의 종류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다수의 원칙들이 보완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이나 결과로 연결된다. 따라서 상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느 원칙이 다른 원칙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쟁원칙은 어떤 배열의 기준이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왔다.

특정전쟁이나 군사작전에 적용되는 원칙은 그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를 통하여 분석해보면 가장 빈번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적용된 원칙이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수의 승전사례에서 적용된 원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보다는 비중이 적은 원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전례에서 집중의 원칙이 거론되지만, 사기

34) Ibid., p. 57.

등의 원칙은 특정한 경우에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그 구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전쟁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이다. 어떤 형태로든 원칙들의 비중을 구분하게 되면 전쟁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 원칙 위주로 적용함으로써 원칙이 상충될 경우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국군이나 미군의 경우에는 목표의 원칙을 가장 먼저 열거하여 그 우선성을 암시하고 있고, 한국 육군의 경우에도 목표의 원칙이 가장 상위의 전쟁원칙임을 명시했던 사례가 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우선순위 부여로는 전체적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오히려 전체 전쟁원칙을 본질성을 기준으로 범주별로 구분하고, 그 범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시안적인 제안이지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질적 원칙, 일반적 원칙, 보완적 원칙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군사작전의 승리에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본질적 원칙은 집중, 기동, 기습이다. 그 중에서도 집중의 원칙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기동의 원칙과

<표 2> 전쟁원칙의 분류

구 분	본질적 원칙	일반적 원칙	보완적 원칙
원칙의 종류	집중, 기동, 기습	공세, 보안, 사기	목표, 통일, 절약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쟁의 승리에 공통적으로 작용 • 비중이 매우 높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승전사례에 작용 •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의미 및 중요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한 사항인데 잘되지 않거나 다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 • 자체적 독립적 의미 및 중요성은 미약

35) 육군본부, 교육참고 7-7-11, 『전쟁원칙 적용 전망』(1992), pp. 84-85.

기습의 원칙도 집중의 원칙에 기여하는 측면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항 이외에도 독자적 효과를 도출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본질적 요소로 포함시켰다.³⁶⁾ 각 국가의 전쟁원칙을 설명한 이전의 <표 1>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를 정리한 하몬드(Grant T. Hammond)는 ‘5개 국가 모두가 개념에 동의한 것은 집중(mass), 주도성(initiative), 기습(surprise)이다’³⁷⁾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하몬드는 기동과 주도성을 유사한 내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향에서는 <표 2>의 내용과 일치한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손자는 ‘목표, 공격, 집중, 기습, 협동’, 나폴레옹은 ‘목표, 공격, 집중, 기동, 기습, 경계’, 클라우제비츠는 ‘목표, 공격, 집중, 병력절약, 기동’, 풀러는 ‘방향, 공격, 기습, 집중, 분선, 경계, 기동, 인내, 결단’의 원칙을 주장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는데,³⁸⁾ 이들의 주장에서 가장 공통적인 분모는 집중, 기동, 기습이다. 이것을 그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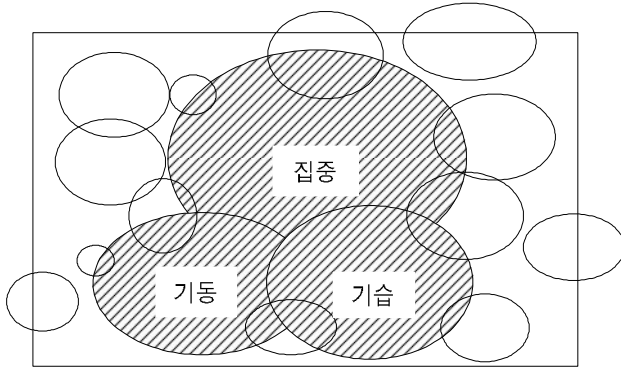
일반적 원칙은 본질적 요소보다는 덜 필수적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군사작전마다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세, 보안, 절약, 통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집중, 기동, 기습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나름대로 독자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원칙들이다. 보안적 원칙은 그 국가의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추가한 원칙이다. 전쟁의 승리에 본질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거나, 다른 요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독립시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칙들이다. 예를 들면,

36) 집중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기동, 기습을 주요 원칙으로 설명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을 참조. 박휘락, 『현대군사연구』(법문사, 1998), pp. 207-240.

37) Anthony D. Mel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p. 116. <표 1>에서 하몬드가 기동(manuever)과 주도성(initiative)을 같은 내용으로 분류한 이유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동의 경우 부대를 이동시키는 속도 자체보다는 적보다 우월한 속도의 기동으로 인한 행동의 자유나 주도권 확보 등에 주목한 결과로써 주도성과 동일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38)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개정판)』, p. 37.

<그림 1> 집중, 기동, 기습의 비중³⁹⁾



목표,⁴⁰⁾ 간명 등이 해당된다.

그 이외에 일부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고 하여 모두 포함시키려고 하면 끝이 없고, 원칙의 수가 많아지면 다른 중요한 원칙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어느 요소를 원칙으로 선택하든 간에 그것이 적용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분석할 수 있는 전례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전례를 통한 예증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특히 어떤 원칙의 결정적인 역할이 명백하게 입증되거나 상당한 공감대를 획득하기 전에는 새로운 원칙의 채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9)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 입문』, p. 49.

40)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과는 다르게 특히 미국에서는 명확하고, 결정적이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표의 원칙’을 중시하지만, 전쟁의 목적에 의해 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군사목표가 설정되게 되어 있어 목표의 논리성은 당연히 확보되도록 되어 있고, 상급부대에서 주어진 목표를 하급부대가 임의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큰 원칙은 아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목표의 선정과 유지(The Sel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Aim)’, 즉 목표간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결정적 목표의 선정이나 그 일관성은 집중의 원칙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정보’, ‘지속성’ 등에서 보듯이 전쟁에서의 중요성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목표의 원칙 이외에도 포함되어야 할 원칙들이 너무나 많다.

2) 원칙별 내용의 구체화 및 체계적 기술

전쟁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의 경우에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발전되었거나 군사학적 연구를 통하여 추가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집중의 원칙은 불변하더라도 현대가 되면서 집중을 달성하는 방법이나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고,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집중의 원칙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이 도출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원칙별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나가고, 그 내용의 양과 구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현실성과 정확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읽기만 해도 누구든지 전쟁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 원칙의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개의 국가에서 각 원칙별 설명내용의 틀을 일관성있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시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명료하고 통일된 기술의 순서와 형식을 발전시켜 적용함으로써 내용 기술상 제외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고, 손쉬운 이해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틀은 국가별로 통일시켜 적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그 틀 자체도 일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원칙을 기술할 경우에 각 원칙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비록 항목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도 해당 원칙의 정의, 중요성, 달성방법, 유념사항의 틀을 갖추어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을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추가 설명, 달성방법, 주의사항, 다른 원칙과의 관계’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틀을 사용하게 되면 각 원칙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포함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원칙들을 비교할 때 용이하다. 집중의 원칙을 이러한 형식에 입각하여 기술해보면 <표 3>과 같다.⁴¹⁾

41)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 입문』, pp. 49-51에 제시된 내용을 더욱 가다듬어 작성하였다.

<표 3> 집중원칙의 기술 사례

핵심 내용	<p>집중은 무력충돌이 실시되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에 비해 우세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과정과 결과이다. 현대에는 전투력의 집중에서부터 노력의 집중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집중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열세하더라도 군사작전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우위를 달성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에는 집중이 병력보다는 화력을 중심으로, 공간적 집중보다는 시간적 집중으로, 동시성과 통합성을 위주로 하여 달성되거나 나타난다. 지휘관은 결정적인 지점에 집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면서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그 외 지점에서의 과감한 절약과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p>
추가 설명	<p>집중은 '큰 것은 작은 것을 이긴다'는 단순한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투력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였거나, 크기만큼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그러한 전투력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무력충돌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부분적인 집중의 연속적 달성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집중은 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적에게 격파당하기 전에 우리의 강한 부분이 적의 약한 부분을 격파한 후, 적의 강한 부분을 협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p>
달성 방법	<p>전쟁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집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육성한 바탕 위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쟁수행계획을 수립하며, 목표를 단계화 및 조직화하고, 일관성있는 계획 하에서 제반 요소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항상 명확하고 결정적인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전체적인 전투의 소요를 최소화하거나, 상대적 우세의 지속적 달성을 보장하거나, 전투력의 효과적인 통합을 보장해야 한다. 결정적이지 않은 임무나 지역에서 노력과 전투력을 절약하고, 전투력의 기동성을 향상하고 기습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전투력 효율성은 향상시키고 적의 그것은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략)</p> <p>현대의 집중은 병력보다는 화력을 통하여 달성되고, 분산된 상태에서 존재하다가 일정한 시간에 목표에 시간적으로 집중하며, 제반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달성한다. 합동작전을 통하여 다양한 군사력의 상호보완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승효과를 달성하면, 외부적으로는 군사력이 유사하나 실질적으로는 훨씬 큰 전투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범위에서 집중을 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와 기동력을 통하여 제반 군사력의 시간적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적은 규모로서도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전투력을 증대시키게 된다.</p>
주의 사항	<p>어느 한 지점에 대한 집중은 다른 지점에서의 전투력 열세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그 지점에서는 자동적으로 적에게 집중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면서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유의하고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집중은 밀집과 다르다. 밀집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투입된 군사력의 양만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집중은 그러한 군사력들이 각자의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구비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p>
다른 원칙과의 관계	<p>다른 모든 원칙들이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할 정도로 집중의 원칙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집중의 원칙과 목표의 원칙이나 절약의 원칙은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동의 원칙 및 기습의 원칙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p>

이러한 통일된 틀을 사용하여 기술한 이후에 각 항목별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기술된 내용 중에서 전사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추가할 수도 있다.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항목을 전쟁원칙으로 포함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여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상의 발전을 통하여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게 되면 시대별로 전쟁원칙을 재검토해야 하는 소요가 적어질 수 있다.

3) 적용절차의 발전

각 지휘관들이 전쟁원칙을 유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도 전쟁원칙은 충분히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기여 여부나 정도를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에 따라서 그 기여 정도의 편차가 너무 커질 수 있다. 대신에 실제 작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전쟁원칙을 반영하거나 전쟁원칙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면 전쟁원칙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쟁원칙을 강조하는 목적은 군사작전의 수행에 그러한 원칙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영 절차의 개발이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사항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

전쟁원칙은 군사작전을 계획하거나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휘관 지침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전쟁원칙 자체가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사항이라서 작전의 틀이 형성되기 이전에 반영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슐리펜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익에 대한 집중과 벨기에를 통한 원거리 우회기동은 오랫동안의 집요한 사고를 통하여 슐리펜(Alfred Graf von Schlieffen, 1833-1913)이 창안하여 제시한 지휘관 지침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통상적으로 지휘관 지침은 엄두로 만들어지거나 자유로운 형식을 통하

여 제시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요즈음에는 지휘관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항목도 사전에 제시해두고 있다. 따라서 지휘관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에 전쟁원칙을 반영하거나 점검하는 절차를 포함시켜 둔다면, 그 부대의 작전계획은 당연히 전쟁원칙에 부합되게 될 것이다.

또한 각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는 수립된 작전계획이 전쟁원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참여와 수많은 요소의 반영 결과로써 작전계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전쟁원칙을

<표 4> 주요 전쟁원칙의 점검표

전쟁원칙	점검 항목
집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한 목표는 결정적인가? • 예하부대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는가? • 주공과 조공 및 그에 따른 전투력 할당이 명확하게 구별되는가? • 주공지역에서는 적에 비해 전투력이 우세한가? • 부대의 임무 전환의 속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가? • 제반 전투력의 효과적 통합을 위한 조치/절차는 가동되고 있는가? • 집중의 시간폭은 어느 정도인가?
기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의 이동속도는 적에 비해 신속한가? • 전투/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요소의 이동속도는 균형을 이루는가? • 행동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 예하부대의 자율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 공중을 활용하는 정도는 높은가? • 낭비적인 지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기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개념은 창의적인가? • 적은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 상태인가? • 우리의 의도를 적이 파악하고 있는가? • 우리의 계획을 적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우리의 시간/수단/방법에 관하여 적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 적의 의도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는가? • 적의 계획/시간/수단/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고려할 수 없다면, 완성된 이후에 작전계획이 전쟁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을 함으로써 작전계획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염두로도 시행할 수 있지만, 원칙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점검표를 사전에 작성해두면 모든 요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화된 내용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집중, 기동, 기습에 관한 점검표의 예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⁴²⁾

4) 명칭의 변경

총력전의 대두로 인하여 전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쟁원칙’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적절해진 점이 있다. 과거에는 군사작전이 전쟁의 대부분을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총력전이 일상화되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적용하는 차원으로 전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총력전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국가 전쟁목적의 타당성 보장, 국가 제역량의 효과적 통합, 타국 지원력의 최대 활용, 국민의지의 고양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총력전은 국가 차원의 전쟁수행에 큰 비중을 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총력전에 적용되는 원칙은 군인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팀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시도하는 국가는 없다. 경제적 번영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전쟁에 관한 사항에는 관심이 적고, 군대가 전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력전의 경우는 국력, 또는 군사력의 규모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정론적인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칙’과 같은 종류의 내용이 적용되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에는 국력의 다른 요소들

42) 1950년대에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전쟁원칙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 바 있다. Robert W. Daly, "First Steps into the Principles of War,"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May 1954), pp. 546-548. 본고에서는 Daly의 의도와 형식은 참고하였으나 점검의 문항은 필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시안적으로 구성하였다.

을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간섭하기가 어렵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군인들이 총력전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전쟁원칙이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시도했던 세브로스키도 그러한 시도의 결론을 통하여 작전적 수준의 전쟁원칙에 관해서 토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시인하고 있다.⁴³⁾

따라서 총력전에 적합한 원칙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군사력의 효과적 운용을 보장하는 범위로 원칙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 즉 내용에 맞도록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서도 군사작전에서의 승리 여부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군사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원칙이 생성된 근원을 보거나 사용자의 대부분이 군인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현실적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명칭을 그대로 두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하여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고, 아예 '전쟁'의 원칙이라는 명칭을 '군사작전'의 원칙 등으로 변화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4. 결 론

전쟁원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그 명칭이 '전쟁원칙'인가 아니면 '군사작전 원칙'인가도 아니고, 어떤 원칙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원칙이 제외되어야 하는가도 아니다. 그러한 원칙들을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통하여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원칙에 대한 이론적 토의보다는 전쟁원칙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의 실용성을 향상하는 데 토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3) McIvor ed., *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 p. vii.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보화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정보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기존 전쟁원칙의 타당성 여부,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방향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전문성과 경험을 구비한 다수의 연구원들이 최근 전쟁의 사례나 외국의 연구 추세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미래전에 적용될 수 있는 전쟁원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화시대의 전쟁수행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전쟁원칙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쟁원칙에 대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전쟁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전쟁에 최선의 전쟁원칙을 적용하여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원칙을 전쟁의 승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보완작업이나 체제의 발전은 최선의 전쟁원칙을 정립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 특정 전쟁원칙의 포함 및 제외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전쟁원칙의 실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투입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쟁원칙에 대한 토의의 실용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① 원칙별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② 원칙별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기술하며 ③ 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에 전쟁원칙의 반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발전시키고 ④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위주의 원칙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쟁원칙에 관하여 토의할 경우에는 원칙들의 변경에 따른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토론의 결과로써 전쟁원칙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변화시켜야 하겠지만, 변화가 지나치게 빈번하면 변화된 내용을 간부들이 숙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소요가 적을 경우에는 변화없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전쟁원칙으로 설정된 몇 가지는 매우 함축적인 내용이라서 포함되는 원칙들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내용상의 변화나 발전을 통하여 다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유념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지휘관과 참모들의 의지와 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전쟁원칙은 지휘관과 참모들이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승리를 보증할 수는 없다. 우수한 지휘관과 참모들이 전쟁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정한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융통성있게 적용할 때 전쟁원칙은 승리에 기여하게 된다. 건강을 위한 원칙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황과 신체적 여건에 맞도록 그 원칙들을 잘 적용함으로써 건강해지는 것과 같다. 전쟁원칙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등불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길을 가르쳐 주거나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원고투고일 : 2006. 9. 25,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전쟁원칙, 전쟁, 군사학, 군사작전, 작전술

<ABSTRACT>

The Practical Approach to the Principles of War

Park, Hwee-rhak

Recently discussions were started on whether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War would be still relevant in the current information age, what kind of change would be appropriate, if necessary, and what principles should be included or excluded. These questions are very relevant under the huge changes made by information technologies. However, if we consider the minimal progress made on the Principles of War despite a few intensive research efforts in the past, we need to question about the productivity of traditional approach on the Principles of War, and move our focus on more productive and practical issues on the Principles of War. Before considering any changes to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War, we need to ensure that those principles are fully utilized in planning and execution of military operations and develop a detail contents for everyone to understand quickly and easily.

In this sense, this article explained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the Principles of War, raised some problems on the current approach to them, and recommended some changes on the focus of the research on the Principles of War. The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categorize the principles based on importance of each principle in the victory of war in order to understand them in a holistic way and put more emphasis on more essential principles. Second, we should systematically arrange and enrich the explanations of each principle for an easy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nstead of making them concise by deleting controversial sentences. Third, we should develop the procedures which can ensure the application of those principles to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military operations. Finally, we may need to think about changing the title, the Principles of 'War,' in order to reduce the confusion caused by the different concept modern war from traditional one in which the original Principles of War began.

Key Words :Principles of War, War, Military Science, Military Operation, Operational Art

K C I